

사람중심 생활환경 거리 조성

임양빈 | 건양대학교 교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도정 구호로 내건 민선5기가 출범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의 공약, 3개의 역점과제가 제시됐다.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민선5기 건설교통 분야의 정책기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충남 항만 육성이다. 당진항을 중심으로 주요 항만을 대중국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항만과 산업단지 간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당진평택항의 위상과 도계 문제 등도 향후 해결과제이다.

둘째, 항만물류 전담부서 설치이다. 도내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개발과 산업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담부서 설치의 직제개편 시 주요 현안과제였다. 타 광역시도의 직제와 비교할 때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S(safe, slow, small)가치가 살아있는 도로 관리이다. 마을 및 학교 인접 지방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활친화형 도로를 확보한다.

차량 중심의 기반시설에 머물렀던 도로를 사람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는 새로운 가치가 담겨있다.

넷째, 도청이전 신도시 지속 추진이다.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사례가 될 것이다.

다섯째, 충청광역권 교통기반 구축 및 방사형 도로 정비이다. 도내 기존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함께 급증하는 물동량 및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2경부,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충청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한다.

여섯째, 도시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충남 만들기이다. 도시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반을 구축한다.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그밖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 주거안정 추진, 도로별 주 용도 발전체계 마련 등 3개의 역점과제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건설교통 분야의 공약들을 민선5기에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에 불어 닥친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을 뒤로하고 충남도는 이전처럼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해외자본이 활발하게 서북부권을 중심으로 유입됐지만 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청년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투자가 고용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서해안경제권 시행과정에서 도내의 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감소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투자 현실은 외자유치 과정에서 충남도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충남은 전통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나 이제는 인구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가 되었다.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 기후변화 등은 우리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그 크기와 실체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데 이런 미래과제에 대한 지역의 대응태세를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교통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정책시행에서 진일보하여 지역민의 폭 넓은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기반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공원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의 육성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지역적 한계를 타하기 위해 앞서 충남의 사회자본을 결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뛰어난 자연환경, 지속적인 외부 인구유입, 통합형 지역정서, 미래형 산업기반 등은 충남만이 갖고 있는 사회자본이며 이의 상호보완을 통해 향후 지역 발전의 기회요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경기침체와 세종시 논란, 4대 강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충남이 이런 그 동안의 성취를 돌이켜 볼 때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대처한다면 민선5기에는 충남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